

# 행위적 실재론으로 본 울프의 포스트휴머니즘 미학: 『과도』와 『올랜도』\*

박 신 현

## I. 서론

본 연구는 양자물리학(quantum physics)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담론의 상호 “얽힘”(entanglement)으로 보는 캐런 배러드(Karen Barad)의 저서 『우주를 중간에서 만나기: 양자물리학과 물질과 의미의 얽힘』(*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2007)을 주요한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20세기 초 영국작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작품들에 구현된 포스트휴머니즘 미학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000년대 이후 인간과 비인간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물질성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세계를 생산해나간다고 보는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이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1040260).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Braidotti 277). 이런 신유물론 중 페미니스트 유물론(feminist materialism)을 대표하는 배러드는 양자물리학, 특히 닐스 보어(Niels Bohr)의 상보성(complementarity) 원리를 발전시킨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을 자신의 주요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윤리적 이론 틀로서 제안한다(Barad 30-32, 124). 본 연구는 양자물리학의 중요개념들을 발전시킨 과학기술 실천이론인 배러드의 행위적 실재론을 문학비평의 방법론으로 적용하여 모더니즘 작가 울프의 소설들, 『파도』(*The Waves*, 1931)와 『올랜도』(*Orlando: a Biography*, 1928)에 전개되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즘의 미학을 논증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행위적 실재론의 세계관은 울프의 사상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행위적 실재론의 주요 개념들인 회절(diffraction), 얽힘, 내부적-상호작용(intra-action), 물질적-담론적 실천(material-discursive practices), 현상(phenomena) 등은 울프의 주제와 미학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인 언어이다.

최근 페미니즘 이론 내에서 신유물론이 새 패러다임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신물질주의 페미니즘(new material feminism)은 지난 수십 년간 물질의 물질성을 무시하는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가 인문학을 지배해 온 것에 반응하여, 물질화의 과정에서 물질의 행위능력(agency)을 존중하고, 담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상호연루(the interimplication of the discursive and the material) 안에서 물질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고자 한다(Jagger 321). 신물질주의 페미니즘은 “자연”(nature)을 인간을 포함한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변화시키는 “행위자적인 힘”으로 새롭게 정의한다(Alaimo 5, 7). 인간 신체의 구성 안에서 담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비인간 및 포스트휴먼 자연”(nonhuman and post-human nature)이 인간과 맺는 관계를 탐색하며 특히 육체와 자연의 행위능력에 주목한다(7).

배러드는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동시대 신유물론 학자 중 한 명이다. 많은 신유물론적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배러드의 행위적 실재론에 의존하고 있듯이 행위적 실재론은 이 새롭게 상승하는 조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Alaimo 11). 행위적 실재론은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인간에게도 능동적 행위능력을 인정한다(Barad 177-78). 배러드에 따르면 개별 행위능력들이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즉 상호 얽힘(mutual entanglement) 속에서만 출현한다(33). 세계는 이런 내부적-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이며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의 구분도 미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담론적 실천을 통해 생산된다(Barad 32; 140-41). 이런 면에서 행위적 실재론은 세계의 미래에 대해 매우 열려있다. 이러한 사유체계는 『파도』와 『올랜드』에서 자아와 세계가 물리적-담론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모습, 그리고 역사가 생성 중인 과정으로서 역동적으로 열려있는 모습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준다. 행위적 실재론에선 미래의 개방성 덕분에 인간, 비인간, 사이보그, 그리고 다른 형태들의 물질성도 거듭해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Barad 178).

국외에서 행위적 실재론은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뜨거운 반향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초학문적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Hollin et al. 2-4). 하지만 행위적 실재론을 깊게 탐색하여 이를 구체적 문학작품 분석에 적용한 사례는 아직 국내외에서 미진한 상황이다.<sup>1)</sup> 신 유물론을 울프에 적용한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로 울프 작품 속의 물질성 이론들을 연구해온 라이언(Derek Ryan)의 *Virginia Woolf and the Materiality of Theory: Sex, Animal, Life* (2013)가 있다. 그는 특히 제5장에서 배러드의 행위적 실재론 개념들 몇 가지를 『파도』에 적용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사물-권력”(thing-power)을 주장하는 베넷(Jane Bennett)의 활성유물론(vital materialism), 그리고 들

1) 뷔르트(Kiene Wurth)의 “Diffraction, Handwriting and Intra-Mediality in Louise Paillé’s *Livres-livres*”(2014)는 텍스트 위에 핸드라이팅을 겹쳐 쓴 작품을 통해 상호텍스트성과 매체의 문제에 접근한다. 에드먼드(Jacob Edmond)의 “Diffracted Waves and World Literature”(2014)는 시 한편을 회절적 읽기(diffractive reading)로 분석하며 디지털 매체시대의 세계문학의 순환과 차별화의 문제에 대해 논한다. 이 두 편의 논문도 행위적 실재론의 회절개념에 기대어 문화와 미디어를 거시적으로 비평하는 데 그친다.

뢰즈와 가타리(Deleuze and Guattari)의 개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물질세계에 대한 울프의 관념, 물질성의 생명력에 천착하여 무생물 비인간 세계에 관심을 기울인다(Ryan 3-4).<sup>2)</sup> 이에 비해 본고는 행위적 실재론의 존재론적, 윤리적, 방법론적 특성을 더욱 깊고 상세히 소개하면서 『과도』와 『올랜드』 전반에서 다양한 인간 비인간의 존재론적 분리불가능성을 감각적으로 체현한 포스트휴먼 미학의 양상을 탐색한다.

모더니즘 문학이 당대 과학발전과 상호교류한 양상은 새롭게 부각되는 주제이며, 특히 울프가 예술과 철학을 넘어 과학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과 성찰을 보였던 선각적 지성인이었음을 탐색해야할 필요성이 최근 부상한다. 본고는 울프의 작품을 과학발전과의 관련성 속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하려면 생태학과 에코페미니즘을 넘어서서 물리학과 기술과학과 관련시켜야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밀접한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려 한다. 실제로 울프와 20세기 초 동시대 물리학, 기술과학의 밀접한 관련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문헌적 근거들이 발견된다. 20세기 초 물리학과 기술과학의 발전상황과 대중적 보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울프가 당대의 신 물리학(new physics), 양자물리학, 천문학과 기술과학에 대해 보였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 지식을 논증한 다수의 선행 자료들 중 일부를 간략히 소개해 본다.

알트(Christina Alt)의 *Virginia Woolf and the Study of Nature*(2010)에는 울프가 동시대 신 물리학에 보인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를 연구한 선행업적들이 요약돼 있다. 비어(Gillian Beer)는 신 물리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과학 분야에 대한 울프의 반응을 분석했고, 휘트워스(Michael H. Whitworth)

---

2) 로스토스키(Leanna Lostoski)의 “‘Imaginations of the Strangest Kind’: The Vital Materialism of Virginia Woolf”(2016) 역시 그동안 생태비평적 접근이 울프 작품 속 유기체와 자연세계에만 초점을 맞추었던데 비해, “무생물과 인공물”(inorganic and human-made)의 물질성도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는 신유물론 이론 중 하나인 “활성유물론”을 적용해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과 『등대로』(*To the Lighthouse*)를 분석한다(53, 56). 무생물 사물의 생기를 입증하는 데에 치중한다.

와 헨리(Holly Henry)는 에딩턴(Arthur Eddington)과 진스(James Jeans) 같은 대중적 과학 작가들의 저서 속 신 물리학과 천문학에 대한 울프의 참여를 연구했으며, 웨슬링(Louise Westling)도 신 물리학에 대한 울프의 친숙함에 주목했다고 정리한다(Alt 4, 10). 비어는 *Virginia Woolf: the Common Ground*(1996)에서 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에 물리학이 비전문가들을 매혹시켰고, 에딩턴과 진스의 저술들은 베스트셀러였으며, 파동-입자이론이 당시 신문과 잡지에 자주 보도되면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고 밝힌다(113). 어떤 과학자들은 신 물리학을 더 폭넓은 청중에게 전달할 수단을 개발했고, 에딩턴은 라디오를 이용한 선구자였는데, 30년대 후반 일기에 기록했듯이 당시 울프도 라디오에 매혹돼 있었다고 한다(Beer 114). 따라서 그녀도 다른 블룸즈베리 멤버들처럼 이를 청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울프는 『파도』를 집필하는 동안 진스의 저술들을 읽고 있었고, 그녀의 일기와 편지가 말해주듯이, 우주와 시간의 본질에 대한 진스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Beer 114). 헨리도 *Virginia Woolf and the Discourse of Science: the Aesthetics of Astronomy*(2003)에서 1930년 BBC 라디오 방송이 금요일 황금시간대에 진스의 천문학 강연들을 방송했고 울프가 진스의 이 BBC강연을 들으며 동료들과 토론했거나 이 저널에 출판된 강연내용을 읽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96). 몽크스 하우스 사진첩(Monk's House Albums)에 자주 등장하는 BBC 프로그램 감독 시프먼(Charles Siepmann)이 울프와 친분이 있었고 당시 비타(Vita Sackville-West)를 포함한 울프의 절친한 동료들이 BBC에서 방송을 하고 이 라디오 저널에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96).

휘트워스의 *Einstein's Wake: Relativity, Metaphor, and Modernist Literature*(2001)는 1895년 뢰트겐이 X선을 발견한 이래 1913년 보어의 원자모델을 거쳐 슈레딩거 등 양자이론가들의 다양한 모델이 잇따른 1925년까지 '물질'(matter)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급속히 전개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1897년 울프도 뢰트겐선에 대한 강연을 들었고, 모더니스트들은 이 신 물리학의 초기 단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기술한다(146, 150).

그는 이 새로운 존재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자아는 본질로서가 아니라 그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를 통해 존재하므로 울프의 인물 개념과 물질에 대한 새로운 관념 간에 유사성이 있다고 분석한다(Whitworth 156). 새로운 물질 개념은 주체의 장벽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고 암시하기 때문에 울프는 이 새로운 물질 개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본다(157). 웨슬링의 “Virginia Woolf and the Flesh of the World”(1999)도 상대성 이론의 인식론적 교훈, 파동이론,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와 관찰되는 현상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울프를 물리학, 그리고 생태적 인문주의와 연결시킨다(855-57).

울프의 작품과 과학발전의 관계를 고찰하는 이와 같은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이 가능하다(Alt 9-10). 첫째, 울프 동시대의 과학적 문맥을 참조하는 방법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울프 당대의 과학발전과의 관련성 안에서 울프를 읽는 것이다. 둘째,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전반의 과학발전에 대한 울프의 시대를 앞선 선견지명적인 예상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방법이다. 울프가 현대 환경과학을 예견했다며 생태비평가들이 자주 취하는 입장이다. 이런 독해는 현재 환경주의의 전제들과 생태비평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울프의 작품이 환경윤리에 대해 시대를 앞선 인식을 보여주고 모든 생명이 광대한 거미줄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사실을 표현한다고 본다(Alt 9).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을 모두 수용한다. 울프가 20세기 초 신 물리학과 양자이론에 친숙했던 사실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양자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해석을 발전시킨 21세기 행위적 실재론에 대한 울프의 시대를 앞선 선견지명적인 예상이 작품에 구현되고 있다고 논술한다.

행위적 실재론의 중요한 영감은 보어의 철학-물리학(philosophy-physics)에서 나온다(Barad 66). 보어는 양자물리학의 정통해석으로 자리 잡은 코펜하겐 해석(Copenhagen interpretation)의 주요 저자들 중 한 사람이다. 보어는 양자이론의 인식론적 교훈을 강조했다는데 배러드의 접근법은 일관된 보어적 틀에 기초하면서도 그의 설명에서 암시적이었던 존재론적

인 차원들을 명시적으로 만든다(69). 그 동안 울프와 자연환경, 가변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생태비평적 분석들이 인식론적 접근에 치우치는 한계를 드러냈다면 배러드의 행위적 존재론은 울프 작품에서 인식론적인 쟁점과 존재론적인 쟁점 모두를 다룰 수 있는 틀이라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필자의 논문 『『등대로』(To the Lighthouse)에 나타난 양자물리학의 세계관』(2015)을 발전시킨 후속연구이다. 필자의 선행논문은 양자론의 바탕인 파동(waves)의 원리, 1927년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인 불확정성의 원리, 상보성 개념, 양자 전체론(quantum holism)이 『등대로』에 구현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양자론의 패러다임이 울프의 고유한 세계관을 표현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1927년에 발표된 『등대로』를 그 시기까지 집적된 물리학과 양자론 지식의 범주 안에서 연관성을 발견해내는 시도가 지니는 한계와 제약을 경험했다. 울프의 세계관은 창의적인 비전과 상상력, 날카로운 비판력을 통해 당대 과학발전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울프의 작품을 21세기 현대물리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낸다면 울프의 예언적 정신과 그 시대의 물질적 역사성을 재발견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인문적 효용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행위적 실재론 안에 정립된 양자물리학의 개념들을 통해 울프가 염원한 양자 전체론의 사회가 인간개체들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기술, 인공물같은 비인간이 서로 불가분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며 생성되는 포스트휴먼 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배러드는 행위적 실재론의 또 다른 중요한 출발점인 푸코(Michel Foucault)와 버틀러(Judith Butler)의 견해들이 신체의 물질성이 행하는 능동적 역할을 설명하지 못하고 물질을 능동적 행위자가 아니라 수동적 산물로서 재기입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65, 151). 행위적 실재론은 물질성의 풍부성 안에서 권력의 작동을 이해하고 물질을 물질화에 있어 능동적인 요소로 인정해 물질로부터 그 능력의 충만함을 가로채지 않는다(Barad 66). 권력의 작동에 있어 물질의 능동적 역할과 인간뿐만 아니라 비

인간 형태의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배리드는 푸코와 버틀러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울프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포스트휴머니즘의 비전을 언술하기 위해 행위적 실재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하에서는 『우주를 중간에서 만나기』를 중심으로 배리드의 행위적 실재론을 깊게 탐색하여 이를 통해 『파도』와 『올랜도』에서 개인과 세계가 물질적-담론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양상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두 작품 안에서 여러 인간과 비인간 행위능력들이 불가분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창조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포스트휴머니즘의 미학으로서 규명한다. 『파도』와 『올랜도』는 행위적 실재론의 관계적 존재론, 존재론적 분리불가능성으로부터 출현하는 새로운 신체 형태의 미학, 현상의 미학, 얽힘의 미학을 구현한다. 두 소설의 형태적, 색채적, 의미적 아름다움이 행위적 실재론의 회절의 미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II. 『파도』: 현상의 미학, 얽힘의 미학

“나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I am made and remade continually, *W* 97). 『파도』에서 버나드(Bernard)는 다른 행위능력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자아, 현상으로 출현하는 자아를 의식하며 이렇게 고백한다. 그는 “다른 사람은 내게서 다른 언어를 끌어낸다”(97)며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성에 개방된 채 변화하는 자아를 긍정한다.

“신체는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bodies are made and remade, Barad 376). 배리드는 새로운 육체화(embodiment)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체의 경계를 바꾸는 거미불가사리(brittlestar)라는 생명체를 흥미로운 사례로 들면서 이렇게 단언한다. 거미불가사리는 뇌도 없고 눈도

없지만 그 골격 시스템이 시각시스템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눈이다”(they are eyes, Barad 369, 375). 중요한 점은, 포식자에 의해 잡힐 위협에 있을 때, 거미불가사리는 위협에 빠진 신체 부분(body part)을 끊어버리고 그 부분을 재생시킨다는 사실이다(375). 행위적 실재론은 이 생명체의 신체경계가 계속되는 재작업 중에 있듯이, 모든 신체의 경계와 속성은 끝없는 재형성 속에 있다고 강조한다(376). 『파도』에서 자아, 정체성, 신체, 젠더는 현상으로서 창발되며(merge), 물질적-담론적 실천들의 역동적인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 거듭해서 재형성된다. 이 작품에서 인간 간 신체의 경계, 인간과 기계, 자연 사이의 경계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능력들의 얽힘과 끊임없이 진행되는 상호작용 안에서 거듭 재구성된다. 버나드는 다른 누군가가 무엇을 말해줄 때에만 “나는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I only come into existence, *W* 96)라며 존재의 출현 자체가 다른 행위능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기 성격의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자극으로 만들어져서”(96)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존재론적으로 다른 행위능력들과 분리불가능한 자아를 체험하는 인물이다. 울프는 인물도, 사건도, 시공간도 분리된 독립체들이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서 제시하며 이 현상 내부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불가분하게 얽히고 연결된 채 상호작용한다. 『파도』 안에서 과거와 미래, 세계는 생성 중인 과정으로서 계속해서 재형성된다. 행위적 실재론의 중요개념들을 살펴보면 이를 상세히 확인해본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행위능력은 주체의 어떤 속성이 아니라 물질적-담론적 실천의 역동성, 변화하는 가능성들, 세계의 계속되는 재형성을 뜻한다(Barad 141, 178). 행위적 실재론에서 기본적 존재단위(ontological units)는 독립적인 개체들이 아니라 현상(phenomena)이다(139). 경계와 속성을 지닌 독립된 사물이 아닌 현상이 존재의 기본 단위다. 현상은 본원적인 관계들이며 이 현상이 현실을 구성한다. 따라서 현상은 “관계적 원자”(relational atoms)라고 할 수 있다(151). 현상은 내부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존재론적 분리불가분성”(ontological inseparability)이

고 “존재론적인 얽힘”(ontological entanglement)이다(139, 309). 내부적-상호작용(intra-action)은 이미 존재하는 독립개체들을 전제하는 개념인 상호작용(interaction)과 달리 현상-내부-외재성(exteriority-within-phenomena)을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적”이라는 표현이 붙는다(139-140). 현상의 구성요소들의 경계와 속성이 결정되는 것은 특정한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서이다(139). 즉 현상은 구성요소들의 존재론적 분리불가능성인데 오직 특정한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구성요소들의 경계와 속성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존재적 불확정성의 해결을 시행(enactment)하는 것은 행위적 절단(agenial cut)이다. 행위적 절단은 본래 존재론적 불확정성(indeterminacy)을 지닌 현상 내부에서 결단(resolution)을 시행한다(140). 배러드는 존재론적 분리불가능성과 불확정성을 전제하면서도 전통적 인과관계 개념을 수정하여 객관성의 조건을 확보하고자 ‘내부적-상호작용,’ ‘행위적 절단’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인간 주체는 내재적 속성이 있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능력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재형성된다는 의식은 버나드뿐만 아니라 『파도』의 여섯 인물들 모두 안에 자리한다. 네빌(Neville)은 저 멀리 보이는 한 친구의 덧붙여짐으로 인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긴다. 친구가 다가올수록 자신이 “혼합되어,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되고”(mixed up, become part of another),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와 혼합된 네빌이 된다”는 사실이 괴롭다고 토로한다(*W* 59). 질서와 안정을 원하는 그는 자아의 계속되는 재구성을 아프게 감지한다. 이에 비해 버나드는 타인들의 현존을 필요로 하고, “내 변화들”(my transitions)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크게 의존한다는 자각 속에서 “이 사람들 중에 어느 것이 나인가?”(57)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그는 주체의 속성과 경계가 본질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다양한 행위능력들과의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형성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덧붙여지면”(With their addition) 자신은 “이것이기도, 저것이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하다며 만들어진 자아가 아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자아를 인

정한다(64).

버나드는 현상으로서의 자아를 생산시켜줄 관찰자의 시선을 명시적으로 요청하기도 한다. 그는 “나를 향한 눈들이 필요하다”(I need eyes on me, *W* 83)며 가까이 관찰대상이 됨으로써 관찰자와 함께 현상을 창조하고자 한다. 관찰은 단순히 기구로 실험대상을 살피는 행위가 아니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관찰은 현상을 생산하는 데에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보어의 이론에서 현상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의 인식론적 불가분성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만 행위적 실재론에서 현상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을 포함한 여러 행위 능력들의 존재론적 불가분성을 나타낸다(Barad 139).<sup>3)</sup> 따라서 “나 자신이 되려면 . . . 나는 다른 사람들 눈들의 조명이 필요하다”(W 83)라는 버나드의 성찰은 행위적 실재론이 관찰을 물질화되는 경계-그리기 실천(boundary-drawing practices)으로, 세계의 특정한 물질적 재형성으로 설명하는 것과 상통한다(Barad 140). 인도로 떠나는 퍼시벌(Percival)을 위해 여섯 친구들이 모인 저녁만찬에서 친구들의 얼굴 빛 아래에서 “다면체”(many-faceted, *W* 84)가 되길 소망하는 그는 관찰자와 관찰대상의 불가분성, 행위능력들의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 현상으로서 창발하는 자아를 표상한다.

현상은 세계의 역동적인 재형성을 의미한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세계는 물질화(materialization)의 역동적인 과정이다(Barad 140). 버나드는 “모르는 사람”과 섞여버린 자신의 정체성, 계속 진행 중인 물질화(ongoing materialization, Barad 151) 과정에 있는 자아로부터 “교체의 즐거움”(W 85)을 맛볼 줄 아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세계에 안정성은 없다. . . . 모든 것이 실험이고 모험이다”(W 85)라며 세계가 물질화의 열려있는 과정이고,

3) 보어가 양자물리학 교훈의 핵심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연의 일부”(we are a part of that nature that we seek to understand)라는 점이다(Barad 67). 베러드는 양자역학이 작은 사물들에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모든 규모에서 적용되는 자연에 대한 정확한 이론으로 본다(85). 즉 행위적 실재론에서 양자이론은 미시세계(the micro world)뿐만 아니라 거시세계(the macro world)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Barad 70).

“계속 진행되는 재구성”(ongoing reconfiguring) 중에 있다(Barad 141, 170)는 원리를 즐기는 듯 보인다. 그는 “우리는 영원히 모르는 것들과 우리 자신을 섞고 있다. 무엇이 찾아올 것인가?”(We are for ever mixing ourselves with unknown quantities. What is to come?, *W* 85)라며 매순간 다양한 행위 능력들의 역동적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 생기는 새로운 가능성들 앞에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신 개인과 세계의 미래가 허락받는 개방성에 기대를 둔다. 그래서 아내와 집, 자녀들과 함께 점차 안정화돼가는 삶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새롭고, 알 수 없고 낯선, 정체불명의 두려운 경험,” 막 형체를 갖추려고 하는 “새로운 물방울”(the new drop)의 형성을 관찰하자고 스스로 독려한다(138).

울프가 개체가 아닌 인간, 자연, 인공물 등 비인간 행위능력들의 얽힘과 내부적-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하나의 현상을 존재의 기본단위로, 하나의 사건으로서 인식한다는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퍼시벌과 작별하는 저녁만찬 장면과 퍼시벌의 죽음 이후 햄프턴 코트(Hampton Court)에서 여섯 친구들이 재회하는 장면이다. 이 두 차례 친밀한 만남은 행위적 실재론의 존재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구체적인 감각적 경험으로 구현해낸다. 저녁식사 장면에서 인물들과 사물들은 유동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현상으로 창발한다. 퍼시벌을 향한 공동의 감정으로 하나의 물질화된 현상을 함께 생산해낸 여섯 친구들은 이 상태의 지속을 염원한다. 루이스(Louis)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졌다”면서, “우리들이 만들어 낸 것”(the thing that we have made)을 영원히 붙들고 싶어 한다(*W* 105). 지니(Jinny)는 퍼시벌과 젊음, 아름다움으로 벽이 지어진 이 “구체”(globe)를, 버나드는 “우리들에 의해 창조된 빛나는 순간”을 붙잡고 싶어한다(105-06). 하지만 안정화의 순간은 길지 않고 곧 동요와 흩어짐이 찾아오며 퍼시벌을 추억하는 여섯 친구들은 중년이 되어 “우리들 만남의 장소”(154)인 햄프턴 코트에 다시 모인다.

버나드는 모여 있는 친구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들에 합류하면, “또 다른 배치가, 또 다른 패턴이 형성될 것”(another arrangement will

form, another pattern)이라며, 벌써 “내 존재의 질서”가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W* 154). 버나드는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얽힘을 통해 새로운 현상으로 재구성된다. 한편 네빌은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특정한 물질적-담론적 수행성을 통해 형성된 각자의 정체성에 대해 선택과 책임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을 했거나 우리를 위해 선택이 내려진 듯이 보인다”(156-57)라며, 자아의 생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로서, 책임감 있게 내부적-상호작용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행위적 실재론은 내부적-상호작용하기를 위한 가능성들은 매순간 존재하며, 이 변화하는 가능성들은 세계의 생성 안에서 책임감 있게 내부적-상호작용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수반한다고 가르친다(Barad 178). 다른 행위적 절단은 다른 현상을 물질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에 참여하는 절단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한다(Barad 178). 이것은 훗날 버나드가 최종독백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던 완전한 인간의 육체,”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 모든 것”(All that we might have been)을 보며, 마치 하나의 온전한 케이크가 절단될 때, 아이들이 잘라진 자기 몫이 줄어들는 것을 지켜보듯이 우리는 타인의 몫을 아까워했다는 말로 반향이 된다(*W* 205). 다양한 가능성들 중에서 자신이 반복한 물질적-담론적 실천들에 따라, 자신이 시행한 행위적 절단에 따라 각자에게 선택된 삶을 살아왔으며, 타인의 삶은 자신에게선 배제된 몫이기 때문이다. 햄프턴 코트의 만남이 창조한 현상도 곧 동요하고 새로운 형성으로 나아간다. 루이스는 각자의 차이가 다시 떨림으로 전해지며, “잔물결이 치고 의문이 시작된다”고 안타까워한다(171).

행위적 실재론은 물질을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 물질은 가만히 고정되거나 확정돼 있지 않다. 버나드는 “나는 계속 변하고 변했기 때문에”(For I changed and changed), 이런 “우리의 영원한 유동”(our eternal flux)에 홀로 저항하는 듯 안정된 모습인 강가의 “버드나무”(willow tree)에 경외심을 품지만, 이 나무 역시 비인간 행위능력으로서 계속 “흐르고 변화하는”(flow and change) 그의 정체성을 생산하는 데에 참

여하고 있다(*W* 184, 186). 그는 네빌의 시선을 따라 “버드나무 가지들을 통해 보이는 보트, 바나나, 젊은이들”로 구성된 그 순간이, 즉 인간, 자연, 기계가 동등한 행위능력들로서 상호 연결돼 있는 “그 장면이 그토록 강렬하게 절단되었다”(The scene was cut out with such intensity)고 기억한다(186). 불확정한 현상 내부에서 행위적 절단이 결단을 시행하고 내부적-상호작용들이 행위적 분리가능성(agency separability)을 시행한다(Barad 140). 행위적 분리가능성은 절대적 외부성 또는 내부성의 기하학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계속 변화하는 위상배치로서 현상들 내부의 외재성의 문제이다(Barad 176-77). 이 장면은 불확정한 배경들 안에서 네빌의 시선, 버드나무, 보트, 바나나, 젊은이들이 내부적-상호작용함으로써 시행된 행위적 절단으로 분리된 하나의 현상이다.

버나드는 자신의 “정체성”(identity)도 세계도 “그 흐름이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계속 표류한다고 느낀다(*W* 191). 그는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고 친구들을 가리켜 “어떻게 내 인생을 그들의 인생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지”(205) 모른다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정체성을 얘기한다. 심지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으며 다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생산하는 “한 사람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얼마나 신기한 것인가 경탄한다(208). 그는 햄프턴 코트에서 수백만 명 중에서 그들 여섯 사람, 측정할 수 없이 풍성한 과거와 미래 중에서 그 한순간 동안 여섯 친구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206)으로 구성됐던 것을 추억하며 개체들 사이의 분리불가능성과 현상 단위의 존재를 증언한다. 그들이 이내 다시 흩어지게 되자, 그는 “요소들의 새로운 집합체인가? 다가올 것에 대한 암시인가?”(A new assembly of elements? Some hint of what was to come?, 207)라며 다시 맞이하게 될 새로운 구성요소들, 끊임없는 재형성을 예감한다.

행위적 실재론은 신체의 물질성에 주목한다. 인간신체와 인간주체는 미리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신체뿐 아니라, 모든 신체(all bodies)는 세계의 반복적인 내부적-상호작용, 즉 그 수행성을 통해 물질화한다(Barad 150,

152). 신체들은 본질적 경계와 속성을 지닌 사물이 아니라 물질적-담론적 현상이며 안쪽 경계도 바깥 경계도 확정적이지 않고 본질적 경계는 없다(153, 161). 행위적 실재론은 인간의 신체를, 다른 모든 신체들처럼, 내부적-상호작용의 개방된 역동성을 통해 특정한 경계와 속성을 획득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신체가 단순히 특정한 환경 안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환경이 내부적-상호작용으로 함께 구성된다(170). 인간적 신체도 환경적 신체도 역동적으로 재구성된다. 인간 자체가 세계의 진행 중인 재구성의 일부로서 자연문화적인(naturalcultural) 실천에 대한 참여보다 앞서 경계와 속성이 확정된 인간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171). 샤워를 위해 컨스터블 부인이 어린 버나드의 등뼈에 따뜻한 물을 붓자 그는 “감각의 예민한 화살”이 관통하면서, 자신이 “따뜻한 육체로 덮여있다”고 느끼며 몸의 감각으로 확인되는 자아에 눈뜬다(W 17). 그는 이 체험을 통해 “우리는 이 변화하는, 이 감각하는 육체의 옷을 입게 되었다”며 아직 차별적으로 분리되기 이전 상태의 몸을 고백한다. 중년의 버나드는 “자아가 없는 인간”(a man without a self, 211)이 되는 초월적 경험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이발을 한다. “내 머리카락을 새로 잘랐더니”(with my hair newly cut, 208) 목덜미가 따끔거린다고 예민한 몸의 감각으로 전달되는 존재를 확인하면서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 우리 신체세포는 끝없이 변화하고 신체경계도 거듭 재구성된다고 암시한다.

『과도』의 신체는 본질적 경계를 갖지 않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계속 재구성되는 다공성(porous)의 신체로 형상화된다. 신물질주의 페미니스트 투아나(Nancy Tuana)가 논술하는 “끈적이는 다공성의 상호작용적 존재론”(the interactionist ontology of viscous porosity, Alaimo 13)처럼 울프는 이 소설에서 새로운 육체 개념으로 점액질의 투과성 높은 “무정형의 신체”(an amorphous body, W 53)의 미학을 창조해 보인다. 투아나는 우리 육체와 세계의 육체 사이의 경계는 투과성(porous)이 있다고 보면서 행위능력이 관계들의 복잡한 연결망 안에서 실행돼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통합이 생기는 생성과정에 주목한다(Tuana 198; Alaimo 14). 『과도』에는 스

스로 달팽이(snail)에 비유하며 자신의 점성 있는 다공성 신체를 의식하는 로다(Rhoda)와 루이스가 등장한다. 루이스마저 “그녀에게겐 몸이 없다”고 하고 그녀 스스로 “나는 얼굴이 없다”고 말하는 로다의 몸이 다공성 신체를 대표한다(W 14, 163). 그녀는 다른 친구들은 권위, 명예, 사랑, 자녀 등 사회적, 물질적으로 견고한 실체 위에, “반복적인 순간들이 결합돼 만들어진 실질 안에 안착된 채 있는데,” 자신은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빈곤하다고 생각한다(163). 학창시절부터 그녀는 강가에서 “이제 내 몸은 녹는다. 나는 개봉되었다”(Now my body thaws; I am unsealed)라며 저항할 수 없는 “내 존재의 흐름”을 감각하면서 꽃으로 화환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싶어 한다(40). “누구에게 내 따듯한, 내 다공성 신체로부터 지금 나를 통해 흐르는 모든 것을 내어줄까?(To whom shall I give all that now flows through me, from my warm, my porous body?, 40)라는 그녀의 독백은 다공성 신체에는 세계의 연결성과 불가분성, 상호작용이 내포돼 있다고 암시한다. 다공성 신체는 타인들과 주변 환경을 향한 개방이며, 공동체로 나아가는 준비 자세이다. 다른 행위능력들과 분리될 수 없고, 끊임없이 교류해야 하는 투과성 신체는 이 세계의 존재론적 불가분성을 증언하므로 아름답다. 따라서 로다는 “나는 이 아름다움을 세상에 돌려줄 것이다”(40)라고 말한다.

『과도』는 간주들(interludes) 곳곳에서 개체의 나약한 다공성 신체에 대해 묘사한다. 두 번째 간주는 마치 접시가 흘러가는 듯이, 칼의 강철이 유동체인 듯이 “모든 것이 부드럽게 형태가 없어졌다”(Everything became softly amorphous)며 자연과 사물들의 무정형 신체를, 즉 비인간 신체의 다공성을 그린다(W 19). 형태가 불확실한 신체는 연결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침입과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기도 하다. 다공성(porosity)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호흡하고 영양분의 신진대사로 몸을 만들어가는 등 우리가 변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에 우리를 해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주지 않기도 한다(Tuana 198). 대학생활로 넘어가는 간주에서는 “동료애를 의식하는 듯” 합창과 독창을 번갈아 하는 “새

들”이 마치 제국주의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군대처럼 집단적인 공격성을 드러내고, 개체의 연약한 육체는 “달팽이 껍질”(a snail shell)로 제시된다(W 52). 울프는 난폭한 외재적 공격성에 노출된 끈적이는 다공성 신체에 대한 묘사를 이어간다. 새 한 마리가 돌진해 “방어할 줄 모르는 벌레의 부드럽고 기괴한 몸”(the soft, monstrous body of the defenceless worm)을 거둬 쪼아대 상처가 곪도록 놓아두고, “썩은 과일의 껍질”(The skin of rotten fruit)이 찢어지자 내용물이 두껍게 새어나오며, 노란 배설물이 “민달팽이”(slugs)에서 나오고 “머리 하나 달린 형태 없는 몸”(an amorphous body with a head)은 서서히 좌우로 흔들린다(53). 이 간주는 개체중심주의적인 신체경계가 깨지는 과정의 고통, 변화와 환경의 영향력에 몸을 내맡겨야 하는 다공성 신체의 겸손과 험난한 변태의 노정을 보여준다.

신물질주의 페미니스트인 앨라이모(Alaimo)는 인간의 신체는 인간-이상의-세계로 개방돼 있고 인간의 육체적 실질은 환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을 주장하면서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교환 속에 있는 우리자신을 상상하도록 독려한다(14). 횡단-신체성은 즐거움과 위협의 현장, 즉 욕망, 놀라움, 활발한 창발(emergence) 같은 즐거움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고통, 유독성, 죽음 같은 위협의 장소이기도 하다(Alaimo 14). 따라서 울프의 다공성 신체는 횡단-신체성이나 끈적이는 다공성 존재론과 마찬가지로 몸이 인간 비인간 환경과 끊임없이 만나서 주고받고 결합된다는 확장된 존재의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고통과 위협의 침투에 대한 무방비적인 노출이기도 하다. 버나드는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이 각자 차이로 분리된 모습을 “열정적인 새들처럼 각자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며 젊음의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자아중심주의로 우리 자신의 달팽이-껍질을 깨질 때까지 두드렸다”고 묘사하면서 마침내 그 “달팽이-껍질”(snail-shell)이 깨지고 서로 가깝게 다가가게 된 것을 기뻐한다(W 89). 껍질이 깨어짐으로써 방어력 없는 달팽이의 몸이 되는 것, 즉 자기 주위의 인간, 비인간 환경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몸으로 변모되는 과정은 고통스러우면서 동시에 훨씬 높고 커다란 차원으로 올라서는 통과외레적

인 사건이다.

울프에게 몸은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표현처럼 “만들어진 신체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신체”(Bodies in the making, not bodies made, Barad 159)이다. 행위적 실재론처럼 울프는 어떻게 신체가 세상 안에 위치하는가를 넘어 어떻게 신체가 “세계의 일부로서” 구성되는지 탐색한다(160). 따라서 버나드는 점차 차별화된 신체에 눈뜨자 “우리는 분리된 신체가 되었을 때 지독히 고통스러웠다”(W 179)고 회고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우리는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구분되지 않는 물질방울들로도 존재한다”(182)며 경직된 신체경계가 아닌 불가분하게 연결돼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합된 신체를 믿는다. 현상은 영원히 재형성되는(reformed) 중이기 때문에 신체의 경계도 재형성되는 중이다(Barad 177).

배러드가 사례로 든 거미불가사리는 신체가 세계 안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일부이므로 신체는 세계의 역동적인 내부적-상호작용의 수행성이라고 증언한다. 육체화는 세계 안에 위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역동적 구체화 속에서 세계의 일부가 되는 것의 문제다(Barad 377). 여기서 배러드는 어떤 개별 유기체(a single organism)로 설명되려면 신체 부분들의 인접성이 요구되는지 질문하고는 연속성(connectivity)은 물질적 인접성(physical contiguity)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377). “얽혀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공간적으로 분리된 입자들”(Spatially separate particles in an entangled state)은, 분리된 정체성을 갖지 않고 “동일한 현상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377). 이것이 버나드와 다른 친구들이 때로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살면서도 하나의 신체일 수 있는 이유이다. 여섯 친구들의 몸은 서로 인접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현상의 일부로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하나의 육체로 존재할 수 있다.

울프는 버나드의 마지막 독백에서 여섯 사람의 몸이 융합된 하나의 육체를 형상화한다. “우리는 나뉘었고 여기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를 떼어 놓은 어떤 장애물도 발견할 수 없다”며 비록 공간적으로 분리되었지만 “나와 그들 사이에 경계는 없다”(There is no division between me and them)

고 밝힌다(W 214). 이제 울프는 행위적 실재론이 조명하는 신체의 역사성과 물질성을 버나드의 육체로 구현한다. 인과관계적인 내부적-상호작용에 대해 중요한 점은 “표시들은 몸 위에 남는다”(Marks are left on bodies)는 사실이다(Barad 176). 그 동안 버나드가 친구들과 나눈 내부적-상호작용들은 그의 몸 위의 표시들로 남아 있다. 어린 시절에 샤워 경험 이후 “예민하고, 통찰력 있게 된” 그의 몸은 “여기 내 이마에 퍼시벌이 낙마했을 때 받은 일격이 남아있다. 여기 내 목덜미에는 지니가 루이스에게 했던 입맞춤이 있고 내 눈은 수잔의 눈물로 가득하다”(214)며 내재적 경계 없이 단일한 생명체처럼 서로 얽혀서 겪어온 모두의 경험, 모두의 역사가 물질화되어 남아있는 신체를 증언한다. 여섯 친구들이 융합된 버나드의 신체는 거미불가사리와 같다. 거미불가사리와 끈적거리는 다공성은 『파도』의 신체 미학이다.

행위적 실재론의 존재론에서 분리(separatedness)는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다(Barad 136). 분리가 아닌 차이가 중요할 뿐이다. 존재를 본원적인 관계들(relations)로서 사유하는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이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포함하는 물질적 신체에 대한 배러드의 포스트휴머니즘 수행성(posthumanist performative)이론의 기초를 이룬다(137, 139). 행위적 실재론은 담론적 실천과 물질적 현상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하며 여러 경계-그리기 실천을 통해 비로소 인간과 비인간, 문화와 자연 사이에 구분이 지어진다고 설명한다(139-40). 울프의 작품도 관계적 존재론에 기초한다. 울프의 세계는 분리가 아닌 본원적 관계들로서 존재한다. 『파도』에서 인간과 비인간, 문화와 자연은 연속성과 상호작용성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분리불가능하게 얽혀있으며, 매순간 만들어지는 차이들이 있을 뿐이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얽힘이 물질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듯이(Barad 160), 이 소설은 인간, 자연, 기계, 인공조형물 등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분리불가능성과 본질적 얽힘이 이뤄내는 미학적 아름다움의 세계이다.

여섯 인물들은 각자의 경험대로 관계적 존재론을 진술하지만 특히 버

나드는 존재론적 분리불가능성을 늘 의식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타인의 현존을 분리된 벽으로 느끼는 친구들과 달리, “나는 분리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I do not believe in separation. We are not single.), “우리는 하나다”(we are one)라고 단언하며 예술의 창조에도 반드시 타인의 동반을 필요로 한다(W 47-48).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타인들과 결합돼 있다는 인식을 소년시절부터 갖고 있으며, 성장할수록 그 깨달음이 심화돼, “내가 가장 이질적인 순간에, 나는 또한 통합되어 있다”(at the moment when I am most disparate, I am also integrated)고 감각한다(55). 그래서 때때로 그는 존재론적 불가분성이 청각적으로 물질화된 교향곡과 “합창소리에 저항할 수 없이 이끌리곤”(W 182) 한다. 바위와 나무를 뛰어 넘어 급류처럼 쏟아져 오는 “합창”(chorus) 안에서 “모든 구분이 융합되어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all divisions are merged—they act like one man, 65) 모습을 본다. 합창과 교향곡은 부분들의 단순한 합산이 아니다. 그는 루이스가 사무실에서 추구하는 국제적 통합에 반감을 드러낸다. 버나드는 루이스가 마치 하찮은 품목들처럼 “우리를 합산하여”(adding us up) 어떤 “총계”(grand total)를 내는 상상을 하며, “덧셈”이 완성되고 “우리의 합계”가 알려지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항변한다(66). 이는 그가 개체들이 형성한 전체를 개체들의 기능적 합 이상의 새로운 양자 전체(quantum whole)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관계는 단순한 합이 아니라 행위능력들 사이의 역동적인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 창조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버나드는 자신과 친구들의 불가분하게 얽힌 관계를 각 악기의 연주자가 “자기 곡조”를 내면서도 “전체의 효과”(the effect of the whole)를 발생시키는 일치와 불일치를 지닌 “교향곡”(symphony)과 같다고 느낀다(190). 여섯 친구들의 관계성을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부분들의 집합체가 각 부분들의 단순한 합 이상의 존재로 된다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듯하다(러브록 123). 사이버네틱스는 살아 있는 생물체나 고도로 자동화한 기계에서 보이는 자가 조절과 자기규제(self-regulating)의 속성이다(115-16).

흥미롭게도 루이스의 남성적 자아중심주의는 개인 간의 관계보다 자신과 인류 문명, 지구의 역사, 자연과의 관계성 면에서 존재론적 불가분성을 사유하도록 이끈다. 존재를 공간적으로는 지구중심으로 수직 확장시키고, 시간적으로는 나일 강 문명까지 이동한다. 어린 루이스는 “내 뿌리는 대지를 뚫고 세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며 자신을 식물의 “줄기”로, 또 붉은 향아리를 든 여인들이 나일 강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막의 스펡크스로 정의할 만큼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지 않는다(W 6). 그는 졸업식 후 영국을 통과하는 기차를 탄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버나드와 네빌에 비해 취업을 하게 된 현재의 육신을 그 얇은 막이 “떨리는”(quivers) 덧없는 것으로 여기며 자신을 파라오 시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기나긴 역사 안에 놓으면서 “이미 수천 년을 살아온 것 같다”고 자부한다(47). 그의 존재의 역사성, 몸 위에 남겨진 표식과 흔적 안에서 과거와 현재는 경계도 분리도 없다. 자신이 3등 열차 칸에 앉아있는 이 순간을 “과거와 현재의 접점”(the meeting-place of past and present)으로 규정하고 인간 역사가 자신을 통해 현재적 비전을 얻게 되지만, 자신이 과거 안에 지나치게 매몰될까 우려하기도 한다(47). 그도 세계를 인간과 비인간이 본질적 경계 없이 불가분하게 얽혀 물결치는 양자전체적인 파동으로 감각한다. 이는 사업가가 된 그가 마치 안팎으로 소용돌이치는 왈츠 장단 같은 식당의 리듬을 느끼는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식당에서 그는 모자들이 위아래로 일렁이고 문이 끊임없이 닫혔다 열리는 가운데, 유동성과 무질서를 의식하면서도 접시를 든 채 흔들거리는 여종업원들의 리듬과 평범한 남자손님들의 리듬이 어우러지는 통합적 조화를 감지한다. “이 연결성 안에 어디에 끊어짐이 있는가? 재난을 엿볼 수 있는 균열은 무엇인가? 원은 깨지지 않는다. 조화는 완전하다. 여기에 중심적 리듬이 있다”(Where then is the break in this continuity? What the fissure through which one sees disaster? The circle is unbroken; the harmony complete. Here is the central rhythm, 67)라며 인간과 인간, 비인간 환경이 유동적 생물체처럼 통합적으로 형성하는 커다란 리듬을 발견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거부하고 인간과 타자들이 차별적으로 정의되게 하는 경계-만들기 실천에 대해 설명한다(Barad 136). 포스트휴머니즘은 자연과 문화의 자연적 구분, 몸의 고정된 구분선을 거부하면서 이런 경계가 능동적으로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136). 행위적 실재론은 물질의 역동성을 고려해 자연문화적 실천들을 이해하는 포스트휴머니즘 수행성 접근법으로서 문화와 자연은 경계의 시행에 의해 구분될 뿐이라고 설명한다(135). 퍼시벌을 위한 저녁만찬에서 문화와 자연, 인간과 비인간 등 다양한 행위능력들이 불가분하게 얽혀 내부적-상호작용함으로써 생산되는 관계적 존재론의 미학이 생생히 구현된다. 버나드는 그들이 친밀한 교감에 이끌려 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여러 관찰자들에 의해 동시에 관찰되는” 한 가지를 창조해 냈다고 기뻐한다(W 91). 꽃병의 붉은 카네이션은 더 이상 단일한 꽃이 아니다. “일곱 가지 측면이 있는 꽃,” 일곱 행위자들이 관찰에 참여해 “각자의 눈들이 자신만의 기여를 하는 완전한 꽃”(a whole flower to which every eye brings its own contribution)은 친구들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된 한 송이 양자전체이다(91-92). 평소 자신을 논밭, 헛간과 동일시 해온 수잔(Susan) 역시 자녀들을 통한 삶의 연속성을 바다의 파동으로 느끼면서 “어떤 날도 움직임이 없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세계 절의 등 위에 올라 누구보다도 더욱 높이 올라갈 거야”라며 삶의 역동적 리듬을 양자론의 용어로 재현한다(95). 지니도 이 만찬으로 인해 “세포막과 신경망”이 충만해지고 퍼져나가 “필라멘트”처럼 주변대기를 떠돌며 만질 수 있고 머나먼 소리들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감각이 민감하게 확장되는 몸의 변화를 생물학과 광학용어로 고백한다(98). 그녀는 퍼시벌이 도착해 서로 손이 닿는 순간, 그들 몸이 불꽃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의자, 컵, 식탁... 모든 것이 떨리고, 모든 것이 빛나고 선명하게 불탄다”라며 그의 현존이 비인간 사물들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101). 루이스도 다양한 런던의 소음에 감각이 깨어나면서 불가분한 세계와 행위능력들의 얽힘을 청각적으로 인지하며, 처음 모였을 때 각자가 “하나의 몸과 영혼에서 분리

된 부분들처럼”(like separated parts of one body and soul) 차이를 내세우려 했지만 그 밑에는 “청동색 동그라미 안에서 빙빙 회전하는 사슬”(99), 즉 차이를 넘어선 강력한 연결성, 불가분한 얽힘이 자리한다고 지적한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공간과 시간은 현상이다. 공간과 시간은 내부적-상호작용의 역동성을 통해 생산된다(Barad 383). 공간시간(spacetime) 자체가 세계의 진행 중인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형성된다(376). 시간성(temporality)은 세계의 반복적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180). 요컨대, 시간성은 생산된다. 공간성(spatiality)도 내부적-상호작용으로 생산된다(181). 반복적인 내부적-상호작용이 특정한 경계를 시행한다(181). 공간성은 경계의 물질적 재형성의 계속 진행되는 과정, 즉 공간적 관계들(spatial relations)의 반복적인 재구조화이다(181). 행위적 실재론에서 공간, 시간, 물질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 공간, 시간, 물질은 반복적 내부적-상호작용의 역동성을 통해 상호적으로 구성된다(181). 공간시간물질(spacetimematter) 복합체가 물질적-담론적 실천이 물질화되는 방식으로 거듭 재형성된다(181). 버나드는 “시간이 그 물방울을 떨어뜨린다. . . . 내 마음의 지붕 위에서 시간이 형성되어 그 물방울을 떨어뜨린다. . . . 시간이 점차 한 점으로 가늘어져 간다”(W 134)며 시간을 물질화 과정 중에 있는 물질로 묘사한다. 버나드가 “지구”를 “태양의 표면”과 “우주의 심연”(165)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유하며 우주에 대한 과학적 경외감과 지구의 생성에 대한 과학적인 성찰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공간성에 대한 변모된 이해도 엿보인다. 루이스도 “무한한 우주의 심연을 통과하며 움직이는 세계”의 소리를 들으며 “역사의 가느다란 작은 조각이 과거”라는 깨달음을 전한다(165). 긴 인류문명도 사라져 갈뿐이라는 루이스의 태도에는 공간시간성의 역동적 변화와 기술문명의 발전 속도 앞에 압도당하는 느낌, 양차대전 사이 혼돈의 유럽문명에 대한 불안이 담겨있다. 버나드는 “1인치의 빛에 불과한 영국의 과거”(167)라고 부르며 권력의 무상함을 우주공간의 무한함과 대조한다. 대신 그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여섯 친구들이 형성한 관계적 존재가 함께 흘러가고 있는 현재에 집중한다. 두 사람의

사유에서 계속 생성 중인 우주, 재형성 중인 시공간에 대한 감각이 드러난다.

결코 고갈되지 않는 내부적-상호작용성의 활기와 계속 재구성되는 가능성들로 인해 주인공들은 항상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상”(unborn world, *W* 144)과 “태어나지 않은 자아들”(unborn selves, 215)을 상상할 수 있다. 울프는 개방된 미래, 새로운 가능성들에 열려있는 역사에 대한 희망을 버나드의 “자아가 없는 사람”(211) 체험에서 선명히 드러낸다. 버나드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듯한 입구가 열리자 무채색의 들판, 죽은 지구를 보게 되지만, 곧 새로운 지구, 새로운 세계, 재생되고 변화된 우주의 탄생을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비전으로 목격하게 된다. “마치 대지가 처음으로 한두 번 숨을 들이쉬고 내뿜고 있는 것처럼 증기가 보인다. . . . 숲은 파란색과 녹색을 고동치고, 점차 논밭은 빨강, 금색, 갈색을 들이마신다. . . . 지구는 천천히 물을 마시는 스펀지처럼 색을 흡수한다”(212)며 새롭게 태어난 지구의 약동하는 풍경을 전한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목격하고 기록해야만 하는 계시록의 저자같이 “나는 볼 수 있지만 남에게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그림자도 없이 걸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오래된 외투”가 떨어져 내렸다고 고백한다(212). 그의 자아가 새롭게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울프는 인류가 생성 중인 세계의 일부로서 책임감 있게 내부적-상호작용에 참여한다면 전혀 다른 세계가 창조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버나드는 “나는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홀로 걸었다. 새로 핀 꽃들을 스치고 지나면서”(I walked alone in a new world, never trodden; brushing new flowers, 213)라며 가장 아름답게 창발된 세상을 증언한다.

### III. 『올랜드』: 주체의 열려있는 가능성, 역사의 개방성

『올랜드』는 현상으로서의 자아와 개방적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해 『파

도』보다 더욱 감각적 체험과 아이러니하고 직설적인 서사진행 방식을 취한다. 현상으로 존재하는 자아는 소설 후반부 올랜도(Orlando)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 다른 자아들을 예민하게 의식하게 되는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이 다양한 자아들에 대한 민감한 의식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목격하는 도로, 거리의 사람들, 나무와 헛간 같은 주변 풍경과의 감각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찾아온다. 울프는 올랜도가 자가용을 운전해 달리는 동안 계속 “또 다른 자아”(another self)가 나타나고 “여러 다른 사람들”로 존재하는 주체성을 확인하는 모습을 생동감 넘치는 방식으로 재현한다(O 212). 울프는 에세이 「서식스에 드리운 저녁」(“Evening over Sussex: Reflections in a Motor Car,” 1930)에서 자동차의 기동성 있는 물질성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롭고 자극적인 방식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녀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이미지에 대한 그녀의 이해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이해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암시한다(Hemmings 10-11). 마찬가지로 울프는 올랜도가 “빠르게 운전하는 만큼 자신의 자아들을 바꾸고 있었다. 골목을 돌때마다 새로운 자아가 있었다”(changing her selves as quickly as she drove – there was a new one at every corner, O 213-14)며 올랜도가 자기 자아의 다양성을 인지하게 되는 과정을 시각적 생생함으로 보여준다. 올랜도에게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는 분열이 아닌 가능성들이다. 그녀는 올랜도라고 불리는 “이 특정한 자아”(this particular self)에 싫증을 느끼면서 “나는 다른 자아를 원한다”(I want another, 212)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현상으로 출현하는 자아를 기대한다. 올랜도에게 만들어진 신체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신체는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는 극적 사건으로, 4세기에 걸친 삶과 젊음의 지속이라는 마법적인 대서사로서 형상화된다. 울프는 현상으로서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자아로부터 실제로 올랜도가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낙관적인 비전을 『파도』에서보다 훨씬 자유롭게 표출한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주체와 객체, 다른 차이들을 생산하는 것은 물질적

-담론적 경계-만들기 실천들이다(Barad 93). 담론적 실천과 물질적 현상은 서로 외재적 관계에 있지 않으며 물질적인 것과 담론적인 것은 내부적-상호작용의 역동성 안에서 상호적으로 연루된다(Barad 152). 물질적인 것과 담론적인 것은 상호적 수반관계이다(152). 어느 쪽이 우선하지 않는다. 『파도』의 여섯 인물들은 성장해 갈수록 문화적 담론적 실천이 중요해지고, 물질적-담론적 수행들을 통해 차별적으로 물질화된다. 담론적인 실천들이 물질적 차이를, 각자의 얼굴과 몸, 정체성을 생산한다. 은행가 아버지를 두고 “나의 젠더들”(W 12)을 의식하는 남성 루이스는 갈수록 로다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배리드는 주체성의 구성에 있어 푸코가 전개한 담론-권력-지식(discourse-power-knowledge) 실천이론과 버틀러가 전개한 젠더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 이론을 수용한다. 푸코는 신체의 물질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버틀러는 물질을 “물질화의 과정”(a process of materialization)으로 본다는 점에서 행위적 실재론의 출발점이 된다(Barad 61, 63, 65, 150). 다만 행위적 실재론은 푸코와 버틀러의 자연-문화 이분법 한계를 지적하면서 물질을 능동적 행위자로 인정하는 수행성에 대한 포스트휴머니즘 설명을 제공한다. 푸코는 담론-권력-지식 결합체가 주체를 구성한다고 본다(Barad 57). 권력이 몸을 장악하는 것은 구체화된 신체행동들의 반복을 통해서라고 한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이론은 이런 푸코의 해석을 원용해 젠더 수행성이 젠더화된 주체(gendered subject)를 구성한다고 설명한다(62). 젠더(gender)는 개인의 본질적 특성이나 핵심적 속성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iterated doing)이며, 젠더화(gendering)는 규범의 반복을 통해 작동하는 일시적 과정이라고 주장한다(57). 주체는 오직 이런 젠더화 과정 안에서 출현한다(62).<sup>4)</sup> 여성인 수잔, 지니, 로다와 남성인 버나

4) 배리드는 특히 푸코의 『성의 역사, 제 1권』(*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I*, 1978)과 『권력/지식』(*Power/Knowledge*, 1980), 그리고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 1990)과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Bodies That Matter*, 1993)를 참조한다. 보어, 푸코, 버틀러의 견해들은 모두 인간중심주의에 얽혀있다. 푸코와 버틀러는 담론적 실천과 물질적 현상 사이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Barad 63-64, 150). 각 이론의 인간중심주의적 한계를 넘어서서 물

드, 네빌, 루이스는 학창시절부터 반복된 수행성을 통해 젠더화된 주체로 구성되지만 주체성의 차별적 구성은 졸업한 이후 더욱 분명해진다. 항상 자기 몸과 자연의 몸을 동일시해 온 수잔은 몸 안에서 “어떤 단단한 것”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며 “나는 내 어머니처럼 될 거야, 푸른 앞치마를 입은 채 말이 없는”(W 71)이라며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남자친구들과 달리 가임기 여성으로서 발달된 육체를 자녀의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결부시킨다. 그녀를 여성으로, 아내와 엄마로 만든 것은 거둬진 수행들이다. 수행성은 반복적인 내부적-상호작용이다(Barad 184). 수행적인 것은 강력하고 넓게 은밀히 퍼진다(Barad 62). 시골아낙과 모성의 삶은 수잔이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선택지이다. 그녀는 젠더화된 정체성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젠더화되기 이전 더 자유롭고 다른 품성 한 가능성들이 많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W 139-40).

하지만 물질적-담론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 중인 주체 개념은 오히려 새로운 주체,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가능성들을 실현하는 열려있는 주체를 사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개방된 주체의 삶을 영속해 나간 인물이 바로 올랜도이다. 현상은 물질적-담론적 실천들을 통해 생산된 차별적 패턴들이다(Barad 140). 인간은 완전히 형성된,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참여하는 물질적-담론적 실천을 통해 내부적-상호작용하며 함께 구성되는 주체로서 등장한다(168). 울프는 16세기를 몇 년 앞둔 시기에 17세 소년의 삶을 시작하는 올랜도를 “백만 개의 촛불이 빛나는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내면으로부터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로 소개한다(O 13, 39). 이는 현상으로서 출현하는 올랜도 정체성의 다양성, 유동성을 암시한다. 실제로 올랜도는 여성 사샤(Sasha)와의 사랑에 대한 실망, 자기 문학작품에 대한 남성작가 그린(Nick Greene)의 조롱 섞인 비평으로 인한 실망을 겪은 이후 여성으로 변화한다. 30세까지 남성이었던 그가 여성으로 변한 뒤 이후 쪽 여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성별의 전환”(change of sex)에 대해 올랜도 자신은 전혀 놀라거

나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미리 계획한 듯한 징후”(tokens of premeditation)를 보이고, 그녀를 시중드는 그림스디치 부인(Mrs Grimsditch) 역시 올랜도가 여자가 된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고, 대단히 편안하다고 느낀다(98-99, 121). 울프는 성적 정체성이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를 유동적으로 오가는 것은 현상으로서 형성되는 모든 인간의 정체성 안에 잠재된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암시한다. 울프는 “성별이 다르더라도, 서로 섞여 있다. 모든 인간 안에서 한 성별로부터 다른 성별로의 흔들림이 발생한다”(132)며 올랜도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젠더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가능성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녀 안에 남성과 여성이 섞여있어” 올랜도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결정 내려질 수 없다”(133)고 말한다. 재거(Gill Jagger)는 신유물론의 맥락에서 “성별의 차이”(sexual difference)를 고려하는 것은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서 차이를 재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고 한다(323). 특히 행위적 실재론은 존재론을 관계적인 것으로서 사유하고 담론과 물질성을 상호연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별 차이의 이분법적 구성도 재형성에 개방될 수 있게 해준다고 평가한다(Jagger 323). 올랜도의 성별의 전환은 역동적인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현상이다. 올랜도의 “성별화된 신체라는 현상”(phenomena such as sexed bodies, 337)은 내부적-상호작용 안에 있는 경계-만들기 실천을 통해 구성됐다.

울프는 젠더를 주체의 어떤 속성이나 본질적 특성이 아닌 일종의 활동, 어떤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으로 이해한다. 울프는 반복적인 물리적-담론적 실천, 수행성이 인간 주체를 생산하고, 젠더화된 주체를 구성한다는 점으로부터 오히려 인간과 삶의 열려있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올랜도는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성의 옷에서 여성의 옷으로 바뀌 입자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활동에 제약이 따르자, “의상의 변화”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에게 대한 세상의 시선을 바꾼다”고 토로한다(O 131). 실제로 올랜도는 18세기 엘리자베스여왕시대에 애디슨(Addison), 포프(Pope), 스위프트(Swift) 등 동시대 “남성

천재 문인들과의 교제”를 바라며 집에 초대했으나 여성으로서 “그들에게 차만 따랐고”(147) 의견은 무시당하는 환멸을 경험한 뒤부터 남성의 의복을 자유롭게 입기 시작한다. 남성 의복을 입고 다른 여성 넬(Nell)과 만나자 남성성이 되살아나고 여성 간의 우정에 눈뜨는 등 그녀의 젠더는 다른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새롭게 생성된다. 다른 수행성은 다른 주체성을 구성한다. 한낱 의상에 의해 변화되는 정체성을 비웃듯이 올랜도는 의복을 맘대로 바꿔 입으며 두 가지 젠더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삶의 즐거움과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린다.

앞선 소개한 거미불가사리는 주변 빛에 반응하여 착색을 변화시키고 포식자에 의해 위협에 빠지면 신체경계를 바꿀 수 있다. 그 신체경계의 계속 진행되는 재형성은 물질적-담론적 실천의 산물이다(Barad 376). 생존의 가능성은 거미불가사리가 신체경계를 차별화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378). 거미불가사리의 생존은 관계적인 본성의 현실을 분별하는 능력에 의존한다(376). 환경과 내부적-상호작용을 하면서 포식자를 분별해 그 존재에 중요한 경계와 속성을 재형성하므로 거미불가사리의 담론적 실천은 곧 물질적 시행이다. 지식과 물질성이 서로 얽혀있는 행위적 수행, 아는 것(knowing)과 존재하는 것(being)이 상호 얽힌 실천이다(376). 물질의 역동성 덕분에 존재는 생존을 위해 능동적으로 경계-그리기 실천을 시행할 수 있다. 살아가고 발전하기 위해 인식을 실천함으로써 신체와 세계의 끊임없는 재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올랜도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젠더와 삶의 경계를 계속 재형성한다. 인간으로서 작가로서 발전하기 위한 그녀의 담론적인 실천은 물질적 현상이 된다. 올랜도가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현실을 분별하고 물질적-담론적 실천을 통해 젠더와 삶의 경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삶을 향유하던 그녀는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이 다스리는 19세기가 되자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시대정신”(the spirit of the age, O 167)과 충돌을 겪으면서 또 한 번 생존하기 위해, 정체성의 중대한

변모를 실행한다. 올랜도는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활발히 내부적-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존과 번영에 유리한 주체성이 구성되도록 자신처럼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셸머딘(Shelmerdine)과 결혼하는 새로운 실천을 시행한다. 수잔과 로다와는 대조적으로 올랜도는 오히려 남성이 아닌 여성이 된 이후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작가로서도 완성된다. 그녀의 시 「떡갈나무」(“The Oak Tree”)의 집필과 출판 과정은 그녀가 여성이 된 이후 더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고, 셸머딘과의 이상적인 결합 이후에 더욱 문학창작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녀의 4세기에 걸친 삶은 작가로서의 성숙을 의미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변모, 두 젠더의 경험을 통해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성적 존재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성숙하며 마침내 문학작품 「떡갈나무」의 출판과 아들의 출산으로 결실 맺는다. 그녀의 만들어지는 과정 중인 주체성은 인간으로서 완성, 작가로서의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재형성을 해나간다. 푸코의 이론은 올랜도의 주체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해러웨이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푸코의 생명정치(biopolitical) 영역개념은 심각하게 시대에 뒤졌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계속 다시 정하는 새로운 기술과학적 실천(new technoscientific practice)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Barad 65).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 과학기술 시대에 올랜도와 같이 개방된 인간 주체성과 젠더 정체성, 신체와 삶의 경계를 모색하고 전망하려면 행위적 실재론이 필요해진다.

배러드는 모든 물질적 세력들이 행위자로서 기여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는 경계가 실천들을 통해 재구성된다고 설명하는 문화적 자연적 힘들에 대한 통합이론을 제시한다(Barad 66). 올랜도는 인간과 비인간의 강렬한 상호작용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이다. 그녀는 곤충, 물고기, 애완견 등 다양한 동물들, 산과 광야 같은 자연적 생태환경, 그리고 자신의 대저택처럼 인공건조물을 포함한 비인간존재들과의 특별한 연결성을 인식하는 포스트휴먼적인 주체이다. 사실 『올랜도』는 올랜도와 “떡갈나무”(oak tree, O 14)의 4세기에 걸친 관계성을 따라가는 서사이다. 소설

도입부에 올랜도가 떡갈나무 아래 대지에 몸을 던진 채 땅, 나무, 동물, 곤충, 새와 같은 자연의 몸과 인간의 몸이 불가분하게 얽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감각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대단원에서 다시 변주되어 서로 조응한다. 소년 올랜도는 떡갈나무의 단단한 뿌리를 만지며 “몸 아래 대지의 등뼈”(the earth’s spine)를 느끼면서 자신이 “거대한 말 잔등이”에 올라타거나 “흔들리는 선박 갑판 위”에 있는 것 같다고 한다(O 14-15). 심장을 떡갈나무에 밀착시키고 사지를 땅에 눕히면 사슴과 제비, 잠자리가 다가와 여름의 모든 풍요함과 사랑스러운 생동감이 “그의 몸 주위를 거미줄처럼 엮었다”(woven web-ike about his body)고 묘사한다(15). 인간을 나머지 자연과 연속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이 장면은 올랜도의 몸, 땅의 몸, 동물의 몸, 기계의 몸이 모두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물질로서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암시한다. 20세기 올랜도는 처음 봤던 1588년경보다 더 크고 튼튼해졌지만 여전히 삶의 절정기에 있는 이 떡갈나무 아래 다시 눕는다. 이번에도 “척추에서 나온 늑골들처럼 뻗어나간 나무의 골격들”(the bones of the tree running out like ribs from a spine)을 느끼며 “이 세계의 잔등이”에 올라타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지만, 그 세월 동안 출간된 자신의 시집 「떡갈나무」가 품안에 있다는 차이만 있다(224). 인간의 몸과 자연의 몸 사이의 친밀감을 넘어 동질성이 암시된다. 올랜도와 자연의 경계는 무화되고 인간과 자연은 본래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상기된다. 오랜 세월 동안 떡갈나무는 그녀의 몸과 마음에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그녀는 이에 반응하면서 그녀의 정체성이 형성됐고, 작품 「떡갈나무」도 생성됐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물질은 행위능력이 있다(Barad 170). 물질의 역동성이 계속 진행 중인 세계의 재구성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생성능력이 있다(170). 물질은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내부적-상호작용하는 생성(intra-active becoming) 중에 있는 실질이며, 사물이 아니라 행위(doing), 행위능력의 응결(congealing of agency)이다(151). 포스트휴머니즘 수행성이론인 행위적 실재론은 생물과 무생물 모두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인간이 행하는 역할에 대해 논설하면서도, 인간예외주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물질에 세계의 생성에 대한 능동적 참여자로서 그 정당한 몫을 허락한다(136). 터키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올랜도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Mary Queen of Scots)의 유품인 기도서 안에서 핏자국과 머리카락 한 뭉음, 과자 부스러기를 발견하고는 거기에 자신이 피우는 담뱃재를 보탠다(O 122). 그녀는 “변화는 끊임이 없었고 변화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머리카락, 과자 부스러기, 담뱃재. 우리는 이런 잡동사니들로 혼합돼 있다”(Hair, pastry, tobacco – of what odds and ends are we compounded)고 토로한다(124-25). 이는 역사와 삶을 이질적인 물질적 요소들의 조합으로 보여준다. 예기치 못한 물질들의 참여로 새로운 현상이 창발한다. 그리고 올랜도는 자신의 펜과 종이, 풍족한 잉크를 꺼내어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다. 터키에서는 부재했던 잉크와 종이라는 물질이 작품 창작에 중요한 행위능력으로서 작용한다. 우연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새로운 물질들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 개인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올랜도는 자신의 저택과 그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그 안을 채운 물건들이 오랜 세월 활발히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몸에 남긴 표식들, 감정들, 영위된 다양한 삶을 생각하며 저택의 인간적 역사성에 감동한다. 명성의 헛됨을 깨달은 그녀는 새삼 자기 저택을 바라보며 안쪽으로는 거주했던 수많은 인간의 삶과 연결되고 바깥쪽으로는 전체 인근구역 위에 그 특성을 드리우는 역사성과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저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a town rather than a house), 그것도 “머릿속에 하나의 발상을 가진 단 한사람의 건축가에 의해 용의주도하게”(circumspectly, by a single architect with one idea in his head) 건설된 도시처럼 보인다면 딸들과 건물들이 질서 있게 대칭을 이루고, 딸에는 분수와 조각상, 예배당과 종각, 잔디와 수풀, 꽃밭이 적절히 배치돼 조화를 이룬다고 감탄한다(O 72-73). 광대한 유기체처럼 질서정연한 이 건물이 이름 없는 노동자들에게 의해 건설됐고 여기에 수세기 동안 이름 모를 가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왔다는 생각에 저택이 지극히 “고귀하고 인간적”(noble and humane) 이라고 느끼며 “무명의 귀족들이여, 잊힌 건축자들이여”(Obscure noblemen, forgotten builders)라고 경외감을 표한다(73). 대단원에서든 올랜도는 자신과 저택의 방들이 활발히 상호작용해온 것을 음미한다. 자신이 방에 들어서면 즐고 있던 방들이 “눈을 뜨는 것” 같고 방문했던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수많은 기분들을 저장해 놓은 기나긴 인생 같다고 느낀다(217-18). 방들은 올랜도와 4세기 동안 서로 친밀하게 알아왔기 때문에 “그녀와 있을 때는 완전히 솔직해졌고 편안해 했으며,” 방들도 그녀의 기분과 변화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표현한다(218). 이 방들은 능동적으로 그녀의 삶과 정체성의 형성에 참여해 왔으며 그녀와 불가분하게 연결돼 확장된 존재를 구성하고 있다.

세계는 물질화의 열린 과정이며 시간성과 공간성도 이런 과정의 역사성(processual historicity) 안에서 출현한다(Barad 141). 내부적-상호작용은 언제나 특정한 배제를 수반하며, 배제는 결정론의 가능성을 저지해, 열린 미래(open future)의 조건을 제공한다(177). 내부적-상호작용성은 가능한 것을 반복적으로 재구성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린다(177). 미래는 언제나 급진적으로 열려있고, 이런 “개방적 의미의 미래상”(open sense of futurity)은 내부적-상호작용의 본질에 내재한다(178). 공간과 시간, 세계의 위상 배치(topology)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불확정성은 결코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올랜도』의 과감하고 노골적인 시대착오성은 단지 터무니없는 환상이 아니라 현상으로서의 공간시간, 내부적-상호작용의 역동성을 통해 생산되고 계속 재형성되는 시간성과 공간성의 감각적 구현으로 볼 수 있다. 수백 년 동안 젊다는 것 외에 어떤 면에서 올랜도의 시간과 역사는 과거에서 미래로 직선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떡갈나무」 원고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300년 동안 그녀의 품속에 간직돼 왔다.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저택을 방문했던 여러 왕들과 여왕들, “엘리자베스, 제임스, 찰스, 조지, 빅토리아, 에드워드”(O 208)가 잠을 잤던 왕족 침대시트 바닥에 난 구멍을 발견하며, 그녀를 시중들었던 그림스디치 부

인도, 바르톨로뮤(Bartholomew)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장면은 거침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떠나간 사람들과 물질에 침전된 시간의 기록을 보여준다.

하지만 빅토리아시대를 살고 있는 그녀는 “포프 씨는 죽었다”(191)며 엘리자베스시대의 대표 작가들이 과거로 사라져갔다고 밝히면서도, 그 당시 그녀의 작품을 혹평했던 “아주 오랜 친구 닉 그린”(192)이 빅토리아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가가 되어 거리에서 그녀와 우연히 만나 서로를 단번에 알아볼 뿐만 아니라 ‘떡갈나무’의 출판을 돕는 경험을 한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성은 역동적으로 물질화된 현상이며 공간의 위상배치도 경계-그리기 실천에 따라 재구조화되고 있다. 그린같이 올랜도가 문학상을 수상할 때 연단에 서서 200기니의 수표를 건네주며 그녀를 밀턴(Milton)에 비유한 당대의 문사만이 계속 생존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 초반에 “정원사 스티브씨가 있었다”(13)고 했는데, 20세기 초 현재의 정원에서도 “그녀는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는 정원사 스티브 씨를 보았다”(220)고 한다. 정원사 스티브스(Stubbs) 역시 그린 것처럼 4세기에 걸쳐 그대로 올랜도 곁에 머무르는 인물이다. 목공소에서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 목수 “조 스티브스”(Joe Stubbs, 223)도 동일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백화점에서 올랜도는 자동문이 열리며 흘러나오는 밀랍 향기와 함께 모피를 걸치고 러시아 바지를 입은 젊고 날씬한 사샤를 보게 된다. 그 순간 모든 가계가 황톳물 위에서 흔들리는 듯하고 저 멀리 바다로 향하는 러시아 배의 돛대도 보인다(O 209). 그리고는 그 향기를 만든 조개껍데기가 연단으로 변하며 대공부인이 되어 불가사의하게도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살이 찐 중년의 사샤가 그녀를 향해 상점을 따라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한다(209). 후각적 자극으로 인해 공간과 시간이 변한다. 현재의 향기가 과거의 사샤를 데려온다. 환영이나 비전일 수도 있지만, 올랜도가 젊은 시절의 사샤와 중년의 사샤를 만난 것일 수도 있다. 사샤의 삶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백화점이 한순간 불가 강으로 변화하는 장면은 현상으로서의 공간을 그린 삽화이다. 공간시간물질화를 구성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이의 역동적 관계성은 “세계의 개방된 생성”(open-ended becoming)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Barad 182). 과거는 물질적 재형성에 개방된 채로 남아있으며 과거와 미래는 서로를 통해 거듭하여 재형성된다(383). 현상은 다른 공간과 시간을 가로질러 확장하는 물질적 얽힘이므로 과거도 미래도 결코 단혀있지 않다(383). 과거는 결코 뒤에 남겨진 채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으며, 시야에서 멀어졌다고 반드시 짐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181, 394). 『울랜드』에서 역사는 생성 과정 중에 있고, 과거도 미래도 열려있다. 『과도』가 행위적 실재론의 존재론을 들려주는 목소리들이라면 『울랜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를 통해 거듭 재형성되는 개방된 역사를 다중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영화적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 IV. 회절의 미학, 그리고 세계의 생성에 대한 참여와 책임

지금까지 『과도』와 『울랜드』에서 개인과 세계가 물질적-담론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재형성하는 양상을 살펴봤다. 버나드와 울랜드는 행위적 실재론의 존재론을 삶으로 구현하는 인물들이며 두 작품은 행위적 실재론의 문학적, 감각적 체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도』는 존재가 독립적 개체가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점, 한 개체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개체들과 불가분하게 얽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동감 있게 극화한다. 여섯 친구들의 성별, 신체, 직업은 선행적으로 분화된 것이 아니라 이런 차별화는 물질적-담론적 실천들의 복잡한 내부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된다. 이 소설에서 주체성과 세계는 고정돼 있지 않고 거듭해서 재구성을 해나간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설명하듯이 인간주체와 신체는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리고 담론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며 끝없이 생성 중에 있는 세계의 일부를 이룬다(Barad 150). 『울랜드』의 울랜드도 수세기에 걸친 삶을 영유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화함으로써

써 신체와 성별, 삶의 경계는 모두 물질적-담론적 실천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미리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배러드의 이론을 체현한다. 이 소설은 행위적 실재론으로만 사유 가능한 역사성에 대한 개방적 상상력을 펼친다. 두 작품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신체경계를 변화시키는 거미불가사리의 미학, 다른 행위능력들과 분리 불가능한 다공성 신체의 미학, 인간, 기술, 자연이 서로 고립되지 않고 통합적 일체를 이루는 업힘의 미학, 인간, 기계, 인공조형물, 비인간 생명체가 내부적-상호작용을 통해 연결되며 생성되는 현상의 미학을 상세히 분석해 보았다. 두 작품의 주제와 미학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배적 이미지는 회절(diffraction)의 미학이다.

“나는 멀리 드넓은 바다를 본다. 지느러미 하나가 헤엄친다”(W 137). 버나드는 어느 날 찾아온 이 시각적 인상이 계속 떠올라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는 이 인상을 “드넓은 바다 가운데 지느러미”(Fin in a waste of waters, 138)라고 노트에 기록한다. 루이스에게도 유사한 인상이 찾아온다. “잔물결이 수평선 위에 부서진다. 망이 더 높게 높게 올라가 물 정상까지 오른다. 물은 은빛에 의해, 떨고 있는 작은 물고기에 의해 부서진다”(170)고 그린다. 루이스가 본 이 “떨고 있는 작은 물고기”(quivering little fish, 170)는 버나드가 본 “드넓은 바다 가운데 지느러미”(138)를 변주한다. 버나드는 이후에도 자신과 친구들을 “일련의 여섯 마리 작은 물고기들”(a string of six little fish, 189)로 비유하기도 하고, 변화가 사라진 자아 없는 사람의 경험에 들어설 때는 “어떤 지느러미도 이 측량할 수 없는 바다의 광막함을 깨지 않았다”(211) 진술한다. 실제로, 울프 자신이 1926년 9월에 “넓고 텅 빈 바다 위에 떠오르는 지느러미”(a fin rising on a wide blank sea)의 비전을 보았고, 1년 뒤에도 그녀는 결코 타인들은 알 수도 없고,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 “비전의 순간들”의 불가해성에 대해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qtd. in Lee 522-23). 울프는 “어떤 전기 작가도 1926년 늦여름 내 삶에 일어난 이 중요한 사실을 짐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qtd. in Lee 523)라고 일기에 기록한다. 따라서 떨고 있는 작은 물고기에 의해

부서지는 드넓은 바다의 이미지, 실제로는 울프의 내면에 솟아올랐던 장면인 넓고 텅 빈 바다 위에 떠오르는 지느러미의 비전은 소설 『파도』를 창작하게 된 동기일 뿐만 아니라 평생 그녀가 천착한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인상과 관련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드넓은 바다 가운데 지느러미”(Fin in a waste of waters, *W* 138)는 행위적 실재론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작은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일으키는 잔물결이 무한한 바다로 퍼져나가는 현상은 세계의 일부를 이루는 인간 비인간의 다양한 행위능력들이 세계의 생성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모습을 담는다. 드넓은 바다에 비해 지느러미는 작고 미약하지만 그 연결성과 상호작용의 역동성으로 인해 세계의 진행 중인 생성에 자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소박한 이미지에서 울프의 사유 안에 이미 내포돼 있는 행위적 실재론의 존재론적 윤리적 사상을 엿보게 된다. 나아가 “드넓은 바다 가운데 지느러미”는 미학적으로 회절 현상의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배러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인 회절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사로잡힌다고 고백한다(72). 회절은 파동들이 서로 겹칠 때 결합하고 장애물과 맞닥뜨렸을 때 휘어지거나 퍼지는 현상이다. 회절은 수면파(water waves), 음파(sound waves), 광파(light waves) 등 어떤 종류의 파동과도 발생한다(Barad 74). 회절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일상 속 많은 기회들이 있다. 콤팩트디스크 표면 위에서 관찰되는 무지개 효과, 비누 거품 위의 색채 소용돌이 또는 물웅덩이 위 기름 막, 공작 깃털, 또는 잠자리, 나방, 나비의 날개들 위의 무지개빛 역시 회절 효과이다(80).<sup>5)</sup>

『파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무지개, 부채꼴(fan), 고리(ring), 구(globe), 거품(bubble)의 이미지는 형태적으로 색채적으로 회절의 미학을 체현한다(3-4, 34, 53, 164, 189). 울프가 『파도』의 최초 제목을 ‘나방들’로 구상했을

5) 고전물리학에 따르면 오직 파동만 회절 패턴을 생산하지만, 양자물리학은 어떤 상황에서는 물질도 회절 패턴을 생산한다고 한다(Barad 81-82). 물질은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particle) 행동을 나타내고, 다른 상황에서는 파동(wave) 행동을 나타내며 이것을 양자이론의 “파동-입자 이중성 역설”(wave-particle duality paradox)이라고 한다(83).

만큼 특별히 나방과 나비의 움직임과 색채를 좋아해 작품에 자주 등장시키는 이유도 회절 현상의 미학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울프는 회절 패턴에 담긴 존재론적인 의미에 공감한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회절 패턴은 경계의 비결정적인 본질, 불확실한 본성, 경계의 반복적인 재형성, 차이들의 얽힘을 의미한다(Barad 135, 380-81). 『올랜드』의 도입부는 창문을 열자 태양빛에 비추인 올랜드의 손이 “나비의 날개”(butterfly’s wing, O 12)처럼 빨강, 파랑, 노랑의 다양한 색조로 물들었다고 하며 그의 다채로운 정체성을 예견한다. 『과도』는 어린 주인공들이 잡은 “나비들”(butterflies)이 그물 안에서 “퍼덕거리는 날개들”(fluttering wings)의 움직임으로 끊임없이 차이들을 낳는 회절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W 6). 작은 “벌”(bee) 한 마리가 자유롭게 비행하는 몸짓이 졸업 기념식과 교장의 권위를 흔드는 모습을 통해 세계의 재형성에 작용하는 비인간 행위능력의 역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41). 이후에도 거듭 등장하는 “방황하는 나방들”(wandering moths, 128), “거대한 나방”(a great moth, 133)은 사물의 고정성을 부정하고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를 암시한다. 따라서 루이스는 친구들의 눈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방의 날개들 같다”(101)고 하면서 거대한 세계 안에서 미약한 몸짓인 것 같지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행위능력들을 형상화한다.

우리는 세계의 외부적 관찰자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내부적-상호작용 중인 세계의 일부이다(Barad 185). 매순간은 세계의 생성을 위한 여러 가능성들로 살아있으며 이 변화하는 가능성들은 세계의 생성 안에서 책임감 있게 내부적-상호작용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수반한다(178, 182). 우리는 우주의 물질적 생성의 행위자적 일부이므로 우리가 시행에 참여하는 행위적 절단에 대해 책임이 있다(178). 다른 물질적-담론적 실체는 세계의 다른 물질적 형성을, 다른 차이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러드는 우리에게 윤리-존재-인식-론(ethico-onto-epistem-ology), 즉 윤리, 아는 것, 존재하는 것의 뒤얽힘(the intertwining of ethics, knowing, and being)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85).<sup>6)</sup> 저녁만찬 때 버나드는 그들 자신도 역사의 귀중한 순간들에 보태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우리는 창조자들이다. 우리들도 과거 시간의 헤아릴 수 없는 집합에 함유하게 될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We are creators. We too have made something that will join the innumerable congregation of past time, *W* 106)며 이 세계의 생성에 능동적 행위자로서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드러낸다. 그들은 이제 혼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이 . . . 그 빛나고 영원한 대로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a world that our own force can . . . make part of the illumined and everlasting road, 106) 속으로 걸어 나간다. 버나드는 자신이 생성 중인 세계의 일부이며 그 생성에 기여한다는 자각을 통해 책임과 윤리적 요청을 긍정한다. 짧은 로마 체류 후 버나드는 올라 탄 기차가 출발하자 세계가 바다의 파도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신도 이 총체적 연속성에 “연루되고 있다”(am becoming involved)고 느낀다(*W* 137). 자신이 역동적인 주변세계에 “둘러싸이고, 포함되고, 참여하고 있다”(surrounded, included and taking part, 137)고 의식하자 창작의욕이 다시 솟아오른다. 그는 자신이 세계의 외부관찰자가 아니라 자연과 환경의 내부에서, 그 일부를 이루며 내부적-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각한다. 버나드는 비록 우주의 움직임이 인간의 이해가능성을 넘어서지만, 행위적 실재론에서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다”(We are of the universe, Barad 396)라고 말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그 무정한 우주의 일부가 되었다”(We are become part of that unfeeling universe, *W* 208)고 느낀다. 그의 독백은 계속 생성 과정 중인 우주의 변화를 가늠할 수 없지만 인간도 이 생성 중인 세계의 일부라는 행

6) 행위적 실재론은 생산된 현상이 인간적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고 내부적-상호작용 측면에서 인과관계성을 새롭게 사유한다(Barad 171, 177, 393). 동시에 내부적-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요청하기 때문에 논리에 비정합성이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노리스(Marcos Norris)는 행위적 실재론이 자유 의지의 전통적 개념을 문제시하여, 세계의 재형성에 도덕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배러드 자신의 권고와 조화되지 않고 배러드 윤리의 중심에 있는 모순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158-59). 그는 자유의지와 인과관계에 관한 양립가능·불가능론의 철학적 논쟁에 기초해 해결점을 찾는다(Norris 166).

위적 실재론의 존재론을 반향한다(Barad 150).

우리의 실천들이 세상에 차이를 낳는 데 중요하다는 면에서 책무(accountability)와 책임(responsibility)이 따른다(Barad 394). 생성을 위한 가능성들은 매순간 새로 만들어진다. 세계의 일부로서 책임감 있게 내부적-상호작용하는 것은, 세계의 활기에 필수적인 얽힌 현상들을 고려하는 것, 번영할 가능성들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396). 매 순간을 만나는 것, 생성의 가능성들에 민감한 것은 “윤리적인 부름”(ethical call)이다(396). 우리는 세계의 생성에서 우리가 행하는 역할에 대해 책임져야할 필요가 있다(396). 울프는 남성자본가로서 우월감에 빠진 루이스의 태도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남성적 시스템의 폭력성, 전체주의적 성격을 암시적으로 비판한다. 그는 “나의 임무, 내 짐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거대했다. 피라미드가 내 어깨 위에 놓여있다”(W 147)며 남성이 세계 생성에 대한 책임과 행위능력을 독점한다는 계급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사유를 드러낸다. 세계 곳곳을 “함께 엮으려는”(148) 그의 계획이 세계생성의 우연성, 창발성, 역동성을 무시하고 타자의 이질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폭압적 권력에 의한 전체화와 동일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한다. 행위적 실재론과 울프는 세계 생성에 참여하는 인간의 역할은 분명히 독재적이지 않으며 책임은 우리들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짜는 얽혀있는 망들(entangled webs)에서 우리의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며 책임은 자아와 타자의 얽힘에 대한 지속적인 응답을 수반한다(Barad 384). 타자들과 우리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그들과 우리는 “함께 구성되고 얽혀있기”(co-constituted and entangled) 때문이다(Barad 179).

(건국대)

## 인용문헌

- 리브록, 제임스. 『가이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홍유희 옮김, 갈라파고스, 2004.
- 박신현. 「『등대로』에 나타난 양자물리학의 세계관」. 『비평과 이론』, 20권 2호, 2015, pp. 67-96.
- Alaimo, Stacy, and Susan Hekman, Introduction, *Material Feminisms*, edited by Stacy Alaimo and Susan Hekman, Indiana UP, 2008, pp. 1-17.
- Alt, Christina. *Virginia Woolf and the Study of Nature*. Cambridge UP, 2010.
- Barad, Karen.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P, 2007.
- Beer, Gillian. *Virginia Woolf: the Common Ground*. U of Michigan P, 1996.
- Braidotti, Rosi, and Maria Hlavajova, editors. *Posthuman Glossary*. Bloomsbury Academic, 2018.
- Bug, Amy. “Has Feminism Changed Physics?” *Signs*, vol. 28, no. 3, 2003, pp. 881-99.
- Butler, Judith.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Routledge, 2014.
- .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2006.
- Edmond, Jacob. “Diffracted Waves and World Literature.” *Parallax*, vol. 20, no. 3, 2014, pp. 245-57.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Vintage, 1990.
- .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American*. Vintage, 1980.
- Hemmings, Robert. “A Motor Car of One’s Own.” *Virginia Woolf Miscellany*, no. 88, 2015, pp. 9-11.

- Henry, Holly. *Virginia Woolf and the Discourse of Science: the Aesthetics of Astronomy*. Cambridge UP, 2003.
- Hollin, Gregory et al. "(Dis)entangling Barad: Materialisms and Ethics."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47 no. 6, 2017, pp. 918-41.
- Jagger, Gill. "The New Materialism and Sexual Difference." *Signs*, vol. 40, no. 2, 2015, pp. 321-42.
- Lee, Hermione. *Virginia Woolf*. 1st ed., Vintage Books, 1999.
- Lostoski, Leanna. "Imaginations of the Strangest Kind": The Vital Materialism of Virginia Woolf." *The Journal of the Midwest Modern Language Association*, vol. 49, no. 1, 2016, pp. 53-74.
- Norris, Marcos. "Ecocriticism and Moral Responsibility: The Question of Agency in Karen Barad's Performativity Theory." *The Journal of the Midwest Modern Language Association*, vol. 49, no. 1, 2016, pp. 157-84.
- Ryan, Derek. *Virginia Woolf and the Materiality of Theory: Sex, Animal, Life*. Edinburgh UP, 2013.
- Tuana, Nancy. "Viscous Porosity: Witnessing Katrina." *Material Feminisms*, edited by Stacy Alaimo and Susan Hekman, Indiana UP, 2008, pp. 188-213.
- Westling, Louise. "Virginia Woolf and the Flesh of the World." *New Literary History*, vol. 30, no. 4, 1999, pp. 855-75.
- Whitworth, Michael H. *Einstein's Wake: Relativity, Metaphor, and Modernist Literature*. Oxford UP, 2001.
- Woolf, Virginia. *Orlando: a Biography*. Penguin, 2000.
- . *The Waves*. Harcourt, Inc, 2006.
- Wurth, Kiene Brillenburg. "Diffraction, Handwriting and Intra-Mediality in Louise Paillé's *Livres-livres*." *Parallax*, vol. 20, no. 3, 2014, pp. 258-73.

**Abstract**Woolf's Posthuman Aesthetics Based on Barad's Agential Realism:  
*The Waves* and *Orlando*

Shinhyun Park

This study aims to examine posthuman aesthetics in Virginia Woolf's novels, *The Waves* and *Orlando*, based on agential realism which is a posthumanist performative account proposed by new materialism feminist Karen Barad. The lives of Bernard and Orlando in these novels personify the ontology of agential realism. Woolf presents new kinds of bodily aesthetics emerging from relational ontology and ontological inseparability such as the body of viscous porosity, and of brittlestar constantly changing its bodily boundaries through intra-acting with the environment. *The Waves* and *Orlando* are abundant with aesthetics of phenomena, of diffraction, and of entanglements, in all of which human and nonhuman agencies are inseparably entangled and dynamically intra-acting. Woolf makes persons, things, and events emerge only as phenomena, not distinct entities. As Bernard in *The Waves* says he is made and remade continually, human subjects and human bodies are iteratively reconfigured through the material-discursive practices. Orlando's gender-changing, four-century-long life dramatizes the idea that subject, temporality and spatiality are intra-actively produced. This embodies Woolf's optimistic posthuman vision in accord with Barad's belief that humans are part of the world in its open-ended becoming, the future is radically open, and the past and the future are iteratively reconfigured through one another.

■ **Key words** : Karen Barad, agential realism, new materialism, Virginia Woolf, *The Waves*, *Orlando*, posthumanism  
(캐런 배러드, 행위적 실재론, 신 유물론, 버지니아 울프, 『파도』, 『올랜도』, 포스트휴머니즘)

논문접수: 2020년 5월 23일

논문심사: 2020년 6월 11일

게재확정: 2020년 6월 17일